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플러턴 아가페교회〉 제이슨 전 목사 ...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영향력이 선하든 그렇지 않든. 더구나 나보다 앞서 걸어난 사람의 발자취는 내 삶의 방향을 찾을 때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제이슨 전 목사(플러턴 아가페교회 담임, 한국명 전 진호)는 “인생의 참된 가치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영위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장춘몽이라고 하기도 하고 흠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여 풀의 생명에 비유되기도 하는 우리 인생은 순간적인 찰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데 참된 가치가 있다.” 고 강조한다.

전 목사로부터 삶과 종교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유학생으로 도미

전 목사는 1977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대위로 군복무를 마친 후 1981년 미국 유학에 나섰다. 남주주대학교(USC)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워싱턴대학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남아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했다. 2014년 3월, 플러턴 아가페교회의 개척예배를 드리고 현재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 끊임없는 구도의 여정

전 목사는 젊어서부터 도(道)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먼저 무도(武道)를 통해 도를 찾으려 했다. 그가 태권도와 기권문(기수련을 통해 내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전통 무술) 등 무예에 몰입한 것도 도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태권도는 사범 자격증과 국제심판 자격증까지 취득했으며 기권문도 8대 사범으로서 열성적으로 수련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단전호흡에 몰두해 역시 사범으로 수련했지만 여기에서도 그는 도를 찾지 못했다.

불교에도 전념해 보았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에게 불교는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2004년에는 불교적 도를 깨우치기 위해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는 탁날한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스님이 머물고 있는 프랑스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다. 나중에 샌디에이고 에스콘디도에 탁날한 스님이 설립해 가르침을 전하는 ‘Deer Park Monastery’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을 다니며 5년 동안 수련에 힘썼다. 그럼에도 그가 찾고자 하는 진리는 찾을 수 없었다.



▲ 전 목사는 “믿음의 크기는 시간의 양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신실한 사람,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타운뉴스

■ 예수 영접

그러던 중 2009년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전 목사는 “제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오로지 ‘은혜’ 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기독교에 심취했던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예수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도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평신도의 길을 걸을지, 목회자의 길을 걸을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전 목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010년 2월, 그는 베데스다 신학대학(Bethesda Christian University)에 입학했다. 성령의 인도가 있은 후 3개월 만이었다.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린 끝에 입학 2년 만인 2011년에 조기 졸업하고 강도사를 거쳐 201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의 ‘플러턴 아가페교회’ 를 개척했다.

■ 목사 제이슨

제이슨 전 목사는 교회 개척 후 ▶진실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소의 받은 자들을 위한 안아주고 품어주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선교의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전하기 위해 전 목사는 성경 말씀 강해 설교를 비롯해 구원, 예수, 믿음, 회개 등 다양한 주제의 설교를 한다.

전 목사는 “교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믿고,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라며 믿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함이 신앙의 기틀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님은 합당한 기도만 들어주신다. 회개함이 없이 정욕이나 탐욕 같은 이기적

인 기도는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라면서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은 기도는 죽은 기도이다.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전 목사는 “믿음의 크기는 시간의 양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신실한 사람,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 인생은 풀과 같고

전 목사는 인생을 풀과 비교하며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가치를 역설했다. 그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완전한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며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 모두는 풀이나 풀의 꽃처럼 언젠가는 결국 시들어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건,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 이라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전 목사는 또 “오랫동안 여러 가지 길에서 진리를 좇았다. 35년의 긴 여정을 지나 진실한 길, 절대적인 바른 길을 찾았고 이제 그 완성을 위해 겸손히 말씀과 기도애 매진하고 있다. 저의 지나온 길을 바탕으로 저와 같이 바르고 옳은 길을 바라보지만 이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며 “예수만이 바른 길이다.” 라고 강조했다.

◆ 플러턴 아가페교회: (714) 904-3450
2101 W. Crescent Ave. #A, Anaheim, CA 92801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